

정부조직법 중대 고비... 황·문이 풀어 낼까

여야 최고 지도부 오늘부터 협상 재개 방송 중립성 확립 등 '통큰 결단' 주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해빙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휴일인 10일 협상을 중단하고 숨 고르기를 한데 이어 11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대표는 강행 처리와 국회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관철한 주인공이고, 문 위원장은 자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그만 하라"고 질책하며 대표직을 건설했다.

지금껏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법령 제·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정보통신기술(ICT)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그걸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ICT 발전과 방송 중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묘안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절충 지점으로

서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법 마련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6일 SO 문제를 원안 처리하되, 그 조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치개입'이라며 반대해 무산됐지만, 방송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SO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처음 내비친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방송의 공정성 확립으로 수렴된 형국이며 어떤 형태든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신의 입장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 오면 수용할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범정부적으로 ICT의 주요 기술을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자는 대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화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영석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법개편안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도 제시하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같은 입장 차이 속에 실무협의는 사실상 마무러진 만큼 여야는 여야 최고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시점이 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 하향 조정된 SO 문제와 방송 공정성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현재 SO 외에 다른 쟁점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며 "합의된 분야를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5·4전대 일정 확정

내달 1~5일 예비경선 후보 3명 압축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참여는 보장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대로 '5·4 전당대회'에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5·4 전당대회 여론조사 방법을 일반국민과 일방당원,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의 비율을 3:2:1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오는 25일까지 지역위원장 선출과 지역대의원대회를 승인기로 하는 등 일정을 결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등록기간은 28~29일이

다. 만약 당대표 후보로 4명 이상 출마할 경우, 다음달 1~5일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7명까지 후보를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경선을 통해 최종후보가 결정되면 다음달 13일부터 시도당위원장 선출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어 5월4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비대위는 또 선거관리를 맡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4선의 이낙연 의원을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민주·스웨덴 모델 벤치마킹

민주, 정당개혁방안 적극 추진

민주통합당은 10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국 민주당 모델과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한 정당 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본부장 민병두)는 이날 국회에서 '좋은 정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정당 ▲풀뿌리 정당 ▲협치(協治)·거버넌스·생활정치 정당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정치혁신 어젠다를 주도해온 안철수 전 교수가 11일 귀국, 정치행보에 본격 나서는데 즈음, 의식한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바마 모델'에서 착안, '스마트 정당화'를 위해 의원과 지역위원장, 단체장, 지지자,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페이스북 연결망을 구축해 국민·당원과의 의사소통을 대폭 확대

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당원제' 도입, 관련 앱을 개발해 여론조사 시스템 활성화 등 전당원투표제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풀뿌리 정당화'를 위해서는 올 상반기 내 전국 기초단체장 및 전국회의 의장단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지방자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차세대 리더 및 새 이슈 발굴 효과를 기대하는 방침이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민주 지도자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일주일간 토론하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모델을 응용, 매년 1회씩 정치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거버넌스 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안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런 개혁방안을 5·4 전당대회 전인 4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새 지도부 출범 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종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국정정상화 시동

오늘 장관 13명 임명...첫 국무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장관 내정자 7명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처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 5명 등 13명의 장관 내정자를 11일 임명된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위기 국면에서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애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정 파행으로 인한 비상체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연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결의된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단 내각의 틀을 갖추는 쪽으로 입장을 선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채택될 경우 함께 임명장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임명된 장관을 비롯해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청문청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예정자 대신 신제운 기재부 차관과 이응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가운데 국무회의를 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도 12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11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다음날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문이다. 11일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했고, 현재 북한발 위험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인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려 여야가 14일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청와대가 14일까지 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요청한 만큼 일에는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공석 당직 후속 인선 착수

최고위원 2명 호남인물 발탁 관심

새누리당이 10일 공석 중인 지역직 최고위원 두 자리와 정책위의장의 후속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역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 호남 출신을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호남 출신 인사가 발탁될 경우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김경안 전북혁신산단 당협위원장 등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최고위원 2석 모두 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까닭은 지난 대선 때 당의 호남 득표율이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한 만큼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인선에 호남 출신 인사가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정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각각 사표를 냈다.

지난달 중순 진 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사실상 '공석'이 돼 버린 당 정책위의장의 후속 인선에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면 당정책 협력체제를 구축해 안보위협과 경제위기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데다 대선공약 상당수는 법률 제·개정 시까지 정쟁위 업무를 임시로 직접 챙기는 방안과 나성진 정책위부외장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매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지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원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지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이동 지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사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정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업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대수익(예상) 매대가 7억9천만 1억5천만, 용지 1억5천만)

◆상가매매◆

- 신용동 칠전2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대가 8억(보증금 5천만 용지4억 원 이동통신점 임점예정)
- 신용동 칠전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

분양

- 용두동 칠전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매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
- 용두동 칠전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매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칠전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월140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 신용동칠전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0만원(대관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룸3개 3층복합용집 월수익550만 매7억9천만
-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억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상권)

NPL 투자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
▶대출이 많이 된다
▶소자본 투자가 가능하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다
▶단기내 투자금 회수 가능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NPL 교육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1인1물건 우량물건 추천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1대1 개인지도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대여금
- 법원판결문 ■운송료
- 각종채권 ■구상금
-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